

buddhanews.com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자기 근본에다 입력시켜야

25면에서 계속

요. 그 몸과 모습만 쳐서 약으로 썼을 뿐이지, 그 의식은 내 주인공에 입력을 해줬기 때문이죠. 내 주인공의 컴퓨터에 내 마음과 돌이 아니라는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벌써 사람으로 요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명만 썼을 뿐이지, 무명만 벗겨준 거지 살생을 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따치는 대로 죽이고 먹고 그러지 말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그렇하다고 해서 다 살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나쁘고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지렁이를 수십 마리 끓여 다가는, 자기 은사가 그냥 헛헛증이 나가지고는 영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시니까, 산에서야 뭐 먹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야 그랬죠. 그런데 그 제자 스님이 '살생하지 말라!' 이러는 것도 무릅쓰고 '내가 살생을 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별레가 되든지 아무걸로나 만들어도 좋다. 우리 스님을 일어나게 해야겠다.' 그러고는 호미를 들고 가서 그냥 진장을 파서 지렁이를 많이 잡아가지고는 그걸 소금을 넣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고아서 배보자기에 딱 짜서는 매일 두어 대접씩 먹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살이 췌얇게 되고 아, 일어났거든요. 그래 은사 스님이 '애야! 내가 그거 만날 약이라고 주는 그 국물, 참 맛있더냐. 그거, 어디서 냈냐?' 그러거든요. 그래 '나무인데 저 깊은 산에서 사는 나무에서 나오는 순을 갖다가 고아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휴! 그런 나무도 있었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봉양을 하고 그랬지만 그 지렁이는 전부 그 스님 덕에, 다 지렁이라는 모습을 벗었더라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무능한 것이 착하기만 하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너무 무능한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딤느냐? 안의 몸통이 속의 그 의식들이요. 전부 하나로 뭉쳐집니다. 마음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다, 그날!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뒤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 장가를 들어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부모들 모르게 그냥 땅도 뒀 구멍으로 다 팔아가지곤 시골집 뒤 몇 알갱이나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골집 하나 남겨 놓고 훌쩍 가지곤 그냥 돌이 튀었어. 시부모 잔 소리로 듣기 싫고 농사짓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꼬셔졌죠. 그래가지곤 돌이 훌쩍 떠나라고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부모는 어떻게 됐느냐? 부모는 살면서 이때나 들어올까, 저때나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그 땅을 다 팔아가고 집 하나만 남겼어도 부모는 생각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쾌침하다가 나중에는 보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돈을 가지고 있더냐? 그거 몇 푼 금방 쓰고 돈 다 없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냐? 죽었나 살았나?' 이게 항상 걱정이죠. 돈 가져간 미움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것이 그저 잘 살고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안 찾아보더라도 그거 이것들이 속까지 맑고 병들지 말고 그저 굶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하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도 팔아가지고선 그냥 절로 들어갔어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요. 절에 들어가서 한 분은 공양주는 힘에 부쳐서 못하지만 반찬 만드는 채공 노릇을 했고 하나는 부목, 나무는 해오지 못하니 배내고 나무 패고 이러는 부목 일을 맡아가지고선 했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절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이웃에 다시 태어나서 그 절의 스님이 됐어요. 부부가 다 스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끈한 비구승으로 여섯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비구승으로 태어나서 이제 절에서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 그 밑에 있는 사제 스님이 나갔다가 들어오더니만 하는 얘기가요, 길가에 있는 울막을 들어다보니까, 하나는 포대를 두르고 있고 하나는 웃은 입었는데 영감 마누라가 다 늙어가면서 아주 병이 심하고 그랬더라는 얘기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참 불쌍하더라고 사형 스님한테 했어요. 그래 젊은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인제 남편은 사형이 되고 부인은 사제가 됐어요. 그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네가 갔다 오너라. 네가 나가서 그 바지저고리를 시주하라고 그래라." 허허허. 아, 글썽 바지저고리고 바지저고리 나들이지 글썽, 이가 서 말은 들었을 테고 그냥 헤진 거는 말도 못하고, 더러운 것도 말도 못하는데 아, 그것을 글썽 시주하라고 그렇게 내 보냈단 말입니다. 그 스님은 불쌍한 마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자기 은사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얘기를 다 하니가 꺾겔 웃으면서 "그래도 그 천륜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네 자식들이나라, 과거에. 그것이 하나는 머니라고 하나는 네 자식이었던 사람이나라." 그러거든요. 그래

니가 기가 막혀서 스님 앞에 폭 엎드려져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과거에도 빌었고 현실에도 빌고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 말씀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지은 건 자기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 지어 어디 그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아무러 줘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담기지 않느니라. 그릇에 육식과 삼육이 꼭 착했는데 어떻게 네가 주는 그 기도와 베푸는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형 스님은 인제 동생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주를 하라니깐요. 이 옷 한 벌 있는 거를 마저 시주를 해달라느냐고 "아이, 옷 한 벌 있는 거 달라는 스님 난 처음 보겠네." 이러면서 야단법석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호통을 치고 시주하라고 하니까 아, 그걸 두르고 말입니다. 하나가 밥 얻으러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고, 하나가 인제 거기 있을 때는 그 포대를 두르고 쓰고 있고, 아, 이랬는데,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으라고 글썽 그 옷 한 벌을 있는 거 마저 달라면 어떻게하는는 거죠. 지금 밥도 얻어먹으러 나가야 할 텐데 그 옷 없으면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도 시주하라고 득달같이 그냥 그 거저품을 들고는 야단을 하니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는 포대를 반으로 잘라서 소개로 매어 두르고는 그 옷 갖다가 "여기 있소!" 그러고 바깥으로 내던지거든요.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못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새끼오라기다가 꿰어가지고선 들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냥 바깥으로 이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요, 이도 그 살생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들고는 갔어요. 가니까 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은사 스님이요. "애야! 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가 제자가 있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였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웃도리는, 뜯어서 솜 빼고 깨끗이 빨아서, 양젓물 넣고 삶아서 아주 몇 번씩 헹구서 말갭게 해서는 웃도리는 법당을 뒤고, 아랫도리는 저 요사체를 뒤아라." 이렇게 사제한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냥 육사를 같이 빨아가지고는 노닐 들어서, 그 아버지는 위 법당을,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는 법당을 치우고 아랫도리는 어머니가 치우는 겁니다. 그것이 다 헤지도록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걸 뒤으니가 그 온 전합니까? 요만큼 남겨둔. 요만큼 남아도 그냥 그걸 꼬옥 짜가지고는 항상 고걸로만 뒤어요. 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부실부실하게 해서 요만큼 밖에 안 남거든. 그래 요것을 태워서 말입니다. 자기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정성이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였을 때 그래고, 현재에 태어나서 비구로서 형제가

된, 사형 사제가 된 그 판국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하고 나서 그 두 노친네는 그래 밥도 못 얻어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 동네에서 말입니다, 저 건너, 지금처럼 이렇게 총총히 있지 않죠. 저 건너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거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두 부부 거지가 요새는 밥을 얻으러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붙어진 거죠. "아! 그럼 노인네가 죽었나봐. 밥을 얻으러 오지 않잖아?" 이런 자비스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그런 자비스런 생각이 안 들어갔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 어가지고는 그 동네 노인네들과 젊은이들이 그

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이 얘기를 해요. "자네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계시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그게 무슨 소림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가, "언제나 사람은 영원한 걸세."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없으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여기 당신네들 옷 시주 받아온 그 스님네들일세."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스님네들 들어서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버지일세. 그 두 분에서 과거에도 자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거를 시주 받아다가 위 닦고 아래 닦고 해서 요만큼 남은 것까지도 태워서 자기네들이 먹었다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아, 거기서 그 스님네들한테 그냥 폭 고꾸라져서 그냥 손을 쥐고 발발발발 뛰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요. 그랬으니 글썽 그 부모 손에 또 간 거야. 그냥, 그 어루만지면서 다 씻겨서 또 그렇게 해서 승천했어.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떠나는 거죠. 의식은 자기한테 다 놓고 그 무명만 치운 거죠. 그랬으니 자식들은 산 거죠. 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림니다. 자기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잘 들으셨죠? 참, 그렇다고 우리가 참선한다고 저녁에 오래 앉았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일을 무심히 하시고 저녁에 한 30분 동안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주인공! 내가 있으니까 바로 내가 생겼고 내가 생겼으니가 너를 생각하곤 너한테다 모든 걸 다 맡기지 않느냐. 그리고 너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수억권을 이렇게 거치면서 진화해서 이렇게 창조가 됐으니가 너는 다 알지만 현실의 나는 모르고 있잖아. 내 현재 의식은 모르고 있으니 현재 의식도 너의 뜻을, 당신의 뜻을 알려다오.' 이름은 임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주인공의 뜻을 나한테 알려다오. 나한테 실험이 되게끔 알려다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거든지 놓고 자기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겠죠. 저녁마다 꼭 30분씩 관한다. 이렇게 거기 컴퓨터에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입력을 시켜놓곤 자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지켜보는 것이 관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잘되게 해주시오, 못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이 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

움막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쓰고서는 답답 떨면서 그냥 병이 든 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시죠? 허허허. 그래서 동네서 그냥 전부 나서서 어느 집 바깥에다가 그 두 내외를 들게 하고는 뜻뜻하게 불 때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깨끗이 입히고, 그래가 지곤 노인네들끼리 봉양을 하고 전부 젊은 사람들, 자식이 없는 노인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두느냐 그러면서 잘 봉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살도 불고, 웃도 좋은 것 입고, 목욕도 항상 하고 그러니까는 병도 낫고, 그렇게 그냥 잘 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집도 살펴주고 또 어느 자식 많은 집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보살피거든요.

이 노인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가 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네가 부모를 버리고 도주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옷 시주한 절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두 노인네가 찾아가서 스님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스님한테 웃 한 벌 있는 거를 얻은 거를 벗어나서 시주하고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를 도와줘서 호강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뜻뜻한 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 생각이 납니다." 인제 그때서야, 그때서야 생각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땅을 팔아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불효가 어딤습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하고 이랬는데 스님네들께서 이 옷 한 벌을 시주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저희는 지금 편안하게 살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만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고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코리아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월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아.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지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통범음법(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법매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법매,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관공 : 삼보통령, 상단 · 종단관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나. 전문과정(4개월)
◆시연, 대령, 관공, 응호계(신중작법104부), 지장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염반, 화엄의식, 구병의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비바라, 화의제바라
◆나비춤 : 오공양, 유원송, 요삼작법
◆사 물 : 대장,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탄반
◆특 강 : 괘불이운, 종사이운, 종사명반, 점안의식, 시달림(대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범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중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법매 교육원